



# Global Goings-on

## 미 국

###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이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

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협력기관은 상원의 건강보험법안대로라면 미국의 2010년에서 2019 사이의 의료지출은 현행법의 추계보다 0.6% 혹은 2천2백2십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

- 상원은 지난 12월 24일, 민주당 의원 6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통과 시킴
- 공화당은 이 보고서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의료비 지출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자신들의 비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
- 법안의 상원통과를 위해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Hary Reid(네바다주)의원이 제시한 이 안은 같은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현행법에 의한 당초의 예상치보다 0.7%, 즉

2천3백4십억 달러나 높일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.

미 국회예산처는 이와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

- 미 국회예산처는 상원의 법안으로 증가될 비용은 추가된 세금과 각종 징수금 그리고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연방정부의 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
- 반면,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분석에는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킬 각종 세 제안이 고려되지 않았음

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3천6백만 명이 새로이 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전망

-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치료비를 적게 내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들보다는 민간보험가입자들을 더 선호할 것임

보고서는 동 법안에 메디케어 저축을 권장할 독립된 정부기관과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는 고가의 보험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,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2019년까지 늘어날 지출을 상쇄할 정도는 못 된다고 지적

---

2010년 1월 8일 / The New York Times  
By David M. Herszenhorn  
<원문 링크: <http://prescriptions.blogs.nytimes.com/2010/01/08/actuary-still-sees-increase-in-health-spending/?pagemode=print>>

## 은퇴자의 자동항법장치 노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

- 민간기업들이 연금가입자의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정하는 확정급여형 연금방식을 포기하고 있다 - 연금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. 반대로 확정급여형 연금방식은 고용인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.
- 확정급여형 연금방식에서는 고용주가 시장손실분을 감당해야 하지만 확정급여형 연금방식에서는 고용인이 시장의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야 함; 시장에서의 수익이 적으면 연금지급액도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음; 기업들은 회사의 연금 기여를 축소하

기 위해 확정급여형 연금방식으로 전환 중.

- 확정급여형 연금플랜에 가입한 고용인들은 어떤 연금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돈; 이 문제해결을 위해 “확정날짜” 기금을 선택 - 연금가입 초기에는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퇴직연령이 가까울수록 보다 안전한 국채로 투자를 자동 전환하는 시스템. 민간투자연구원 (Investment Company Institute)에 의하면 사적 연금에 가입한 미국인들의 거의 3분의 일이 이 기금을 선택.
-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 (Robert Merton)이 새로운 기금운영방식을 제안
  - 연금가입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퇴직 후에도 삶의 수준을 퇴직 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; 이를 위한 핵심 결정 사항 - 언제 퇴직하는가, 얼마나 저축하고자 하는가, 적어도 연금지급액이 마지막 급여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가 등
- 로버트 머튼의 기금운영방식은 연금가입자들의 연금에 대한 의사결정 포트폴리오에 따라 기금을 운영
  - 본 시스템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기금의 목표수익률 달성 확률을 알려줌; 이에 따라 기여율이나 퇴직 시간을 조정할 필요 있음.
  - 마치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이 차가 코스에서 벗어나면 다른 경로를 보여주는 것

처럼 연금기금이 원래 목표 수익률에서 벗어나면 의사결정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보여줌.

-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연금 수령자는 몇 푼 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위험을 피할 수 있음.

2009년 11월 26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987105&story\\_id=14973155](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987105&story_id=14973155)〉

## 중 국

### 몸을 통해 마음을 치료한다

최근 TV화면에 끔찍한 아이티 지진 장면들이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장면들이 2008년 5월 사천성 지진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충격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.

2008년 7월 이래 중국지진구호프로젝트(China Earthquake Relief Project) - 중국에 소재한 국제표준보건기구인 연합가족병원(United Family Hospitals)의 기금으로 운영됨 - 의 직원들은 사천성의 지진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을 방문하고 있음.

지난 주 중국지진구호프로젝트는 베이징에

서 의료, 상담, 구호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정신외상 극복 모델(Trauma Resiliency Model)(TRM)이라 불리는 지진후 정신외상 치료방법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함.

TRM은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이 있다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음.

중국지진구호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 미국 소재 정신외상자원센터(Trauma Resource Institute)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소장인 로리 리치씨와 엘레인 밀러 카라스씨는 “상담은 한계가 있다고” 주장

- 둘 다 정신외상 구호에 25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지진피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지진 생존자들을 많이 보 왔다고 말함: “TRM은 상담이 아니라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접근합니다. 사람들은 서로간 아무리 달라도 동일한 신경조직을 갖고 있으며 이 신경조직을 통해 일할 땐 다른 언어와 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”

사천성에서 리치와 밀러 카라스 그리고 그들의 팀원들은 급작스런 외상으로 인해 몸 속에 있는 에너지가 압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악몽, 공포, 수면장애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며 감정적 균형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함: “위장장애, 두통, 어지러움과 마비증세를 계속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.”

TRM에서 정신외상 피해자는 막힌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뚫음:

- '트래킹(tracking)': 숨가쁜 호흡이나 빨라진 맥박과 같은 스트레스의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
- '그라운딩(grounding)': 피해자들의 안전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바닥 위에 굳게 서 있도록 권장
- '리소싱(resourcing)': 정서적으로 강한 역할모형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햇빛과 같은 에너지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는 것
- '티트레이션(titration)': 피해자들이 정신외상을 조금씩 떠 올리도록 하는 것
- '펜듈레이션(pendulation)': 몸에서 기분 좋은 부분의 느낌을 아픈 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
- 이 모든 방법은 궁극적으로 감정의 표출과 에너지의 발산을 목적으로 함.

청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상담가인 우 완광씨

는 TRM을 매우 실질적이고 쉬운 치료법으로 소개.

왕씨는 TRM 훈련이 지진 피해자들 뿐 아니라 소방수, 경찰, 심지어는 대학 학생들을 돕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참가자 98%의 한 명: TRM은 이차 외상을 방지하고 구호요원들의 허탈감을 줄일 것임 - 구호요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게 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임.

어린이들도 부모들의 지도 아래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TRM을 활용할 수 있음.

---

2010년 1월 27일 / The China Daily

By Mei Jia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10-01/27/content\\_9382391.htm](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10-01/27/content_9382391.htm)〉